

닥터루젠 리슬링 베렌아우스레제 DR. LOOSEN RIESLING BEERENAUSLESE



용량	375ml
빈 티지	2018
종류	화이트
국가	 독일 > 모젤
품종	RIESLING 100%
세부종류	스위트
알콜도수	7%

TASTING

Aroma	★★★★☆ (4)
Body	★★★★☆ (3)
Tannin	☆☆☆☆☆ (0)
Acidity	★★★★☆ (3)
Sweet	★★★★☆ (3)

테이스팅노트	진한 토피색을 띄는 금색이 마치 호박 보석을 녹여놓은 듯 하다. 폭 잘 익은 황도와 살구를 주로 한 과실미에 꿀, 헤이즐넛, 계피, 말린 망고, 연한 브리오슈의 캐릭터가 와인을 풍만하게 만들어준다. 입에서는 마멀레이드, 당도에 걸맞는 산도가 와인을 그저 달콤한 것만이 아니라 우아함을 더해주며 긴 여운이 이어진다.
푸드매칭	와인 그 자체로 즐기기도 좋고 다양한 과일, 치즈, 디저트와 함께 즐길 수 있다.
상 품 특 징	세계 3대 스위트 와인을 만드는 독일. 모젤에서 제일 가는 포도밭들인 벨레너 존넨우어(해시계), 위르찌거 뷔르츠가르텐(향신료의 정원), 에르데너 트렘첸(지구의 계단), 그라쳐 힘멜라이히(천국) 에서 자란 평균 수령 60년 포도나무들에서 수확한 포도로 만들었다. 보트리티스 즉 노블롯 포도로만 만드려면 110 도 이상의 익슬레 (독일의 당도 단위) 이상의 당도를 가져야만 한다. 닥터루젠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단위인 120 도 이상으로 만든다.

BRAND INFO.

공급사 이름	WEINGUT DR. LOOSEN
공급사 정보	200년 역사를 가진 독일 모젤 지역의 대표 와이너리
브랜드 소개	닥터 루젠은 200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의 대표 와이너리로 모젤지역의 리슬링 포도를 사용하여 다양한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8년 포도밭을 인수한 에른스트 루젠(Ernst Loosen)은, 평균 60년 된 접목되지 않은 포도나무와 토지 특정 분류에 따라 등급화된 포도원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와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모든 화학비료 사용을 중지하고 오직 유기농 비료만을 사용하였으며, 매년 수확량을 철저히 통제하여 양질의 포도만을 수확하고, 지속 가능한 와인을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핸들링과 개입으로 독일을 대표하는 최고의 리슬링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또한 "리슬링의 왕"이라 불리는 에른스트 루젠(Ernst Loosen)은 2005년 "디칸터(Decanter) 매거진에서 올해의 인물"로 뽑혔으며, 와인 앤 스피릿(Wine&Spirits)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의 와인메이커에 독일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수상 or 점수	Wine Enthusiast 93P (2013)